

산, 바다, 들이 어우러진 부안

강 욱 / 자유기고가

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부안군은 ‘평야의 부안’, ‘산의 부안’, ‘바다의 부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호남평야의 남서부를 이루는 ‘평야의 부안’에는 부안읍을 위시하여 계화, 동진, 행안, 백산, 주산, 보안 줄포면의 1읍 7면이 속한다. 이들 지역은 ‘산의 부안’인 변산반도 동쪽에서부터 고부천과 동진강의 하류 및 하구 사이에 위치한다. 이 지역들은 구릉과 평야로 구성되어서 오랜 농업개발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으로 부안군의 핵심지역이다.

‘산의 부안’에 속하는 지역은 변산반도를 이루는 곳으로 하서, 상서, 변산, 진서면의 4개면이다. 이곳은 전북의 노령산맥 서쪽인 서부평야권에서 가장 넓은 산간지대로 하서, 변산, 진서면 일부의 해안지대를 제외하면 ‘산의 부안’인 내변산을 이룬다.

‘바다의 부안’을 이루는 지역은 하서, 변산, 진서면의 해안인 외변산과 위도, 식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등 위도면을 이루는 섬들이다.

부안군은 위와 같이 평야, 산, 바다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평야에는 농산물, 산에서는 임산물, 바다에서는 수산물 등 여러 가지 1차 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물산_{物産} 지역이다.

이와 같이 산과 골짜기가 빼어나고, 땅과 바다가 기름져 인심이 너그럽고 생활이 윤택하니 고려의 대문장가인 이규보_{李奎報}는 부안을 일컬어 속여단자_{俗如蛋子} 하고 현봉수 신자잠_{縣封誰信自蠶叢}이라 하여 풍속의 순후함과 뿌리가 일찍부터 깊었음을 높이 찬양한 바 있듯이 살기 좋은 생거부안_{生居扶安}으로 지칭되어 온 곳이다.

부안읍에서 23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15km 정도 내려오면 보안이 나온다. 이곳에서 오른쪽 길로 난 30번 국도를 따라 달리면 유천리 도요지와 진서리 도요지를 지나 내소사에 닿는다. 부안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내소사는 선운사의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2년(633)에 신라의 승려 혜구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소래사라고 하였다. 그 후 조선 인조 2년(1633)에 청민이 대웅전을 지었는데, 건축 양식이 매우 정교하고 환상적이어서 가히 조선 중기 사찰 건축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설선당·본충각·삼층석탑·동종 등이 있으며, 정문에는 실상사지에서 옮겨 온 봉래루가 있다.

내소사의 유래에 관하여, 일설에는 중국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세웠기 때문에 ‘내소_{來蘇}’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와전된 것이며, 원래는 ‘소래사’라고 했다고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최자의 《보한집》에는 고려 인종 때 정지상이 지었다는 ‘제변산소래사_{題邊山蘇來寺}’라는 시가 있다. 또 이규보의 《남행일기》에도 소래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언제 내소사로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조선 인조 2년(1633)에 건립한 것으로 다포계 양식에 팔작지붕으로 된 불전이다. 전면 3칸은 개방되어 꽃살무늬를 조각한 문짝을 달았는데, 이들은 모두 ‘소슬빛꽃살창호문’이라 하여 정교한 공예품들이다.

내부는 제공_{諸工}의 뒤뿌리를 일일이 연봉으로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단청도 매우 장엄한 금단청으로 채색하였다. 추녀 아래의 귀한대와 내부 층량머리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해 주고 있다. 구조 양식 등에서 조선 중기 이후 다포집의 일반적인 수법을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전내 후불벽 뒷 벽에는 백의 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좌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는 고려 숙종 때에 창건한 절 개암사가 있다. 절 경내에는 보물 제292호인 개암사 대웅전과 지방유형



문화재 제126호인 개암사 동종 등이 있다. 또 개암사 뒤의 울금바위에는 백제 의자왕 20년(660) 무렵에 백제 부흥을 위하여 복신 장군이 유민을 규합하고 군비를 정돈하여 항전하다가 나당 연합군의 김유신과 소정방에게 패했다는 유서 깊은 우금산성이 있다.

변산 반도 주변에는 청자, 분청, 백자 같은 갖가지 자기를 굽던 터가 곳곳에 남아 있다. 이 반도의 동남쪽 끝에 있는 보안면 영전리에서 곰소 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접어들면 나오는 보안면 유천리는 특히 고려 청자의 가마터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가마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사적 103호 요지’라는 글이 씌어진 기념비만 홀로 솟아있다. 또 같은 보안면의 우동리에는 분청 자기의 가마터가 있다. 분청자기는 고려청자가 조선 백자로 옮겨가는 시기의 자기이다.

이런 가마터들은 산내면 진서리에도 열 군데 쯤 있고, 곰소항에서 내소사로 가는 길 남쪽에 있는 신작 부락의 소나무 숲 속에도 스물 세군데가 있다. 삼십년대에 일본 사람들의 손으로 가마가 모두 파헤쳐졌고 해방이 된 뒤에는 개간 사업으로 땅이 거의 일구어져서, 가마의 모양은 되새길 길이 없고 곳곳에 흩어진 사금파리들만이 옛 자취를 짐작하게 해 준다.

청자나 백자가 부자들의 생활용품이었다면 옹기는 이런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요긴했던 생활 용품이었다. 주산면 소산리 베메산 기슭에는 백년전쯤에 이런 옹기를 굽던 ‘점’이 여섯 군데가 있었다. 이곳에 옹기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이 부근의 토질이 옹기 생산에 알맞고 또 옹기를 굽는 데에 쓰이는 땀값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

구암리에서 나와 읍내로 접어들면 군청에서 약 100m쯤 못 간 곳에 원불교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 서문안 당산이 있다. 마을의 공동 제사인 부안을 당산제는 한국 민간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마을 신앙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마한의 천신제 등과 상통하는데, 특히 마한의 천신제와 호남지방의 당산제는 매우 흡사하다. 중요민속자료 제18호인 서문안 당산은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 상원 주장군, 하원당장군 등 4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할아버지 당산은 서문안 당산의 주신으로 화강암으로 된 반석, 돌기둥, 돌새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의 돌새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또한 보안면 우동리에는 반계 유형원 선생의 유적지가 있다. 실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유형원은 뛰어난 학문과 경륜에도

불구하고 초야에 묻혀 은둔생활을 했는데 그 유명한 ‘반계수록’을 집필하며 20여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한 곳이 바로 이곳 보안면 우동리이다.

부안군의 남쪽 어항인 산내면 곰소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두 시간쯤 가다 보면 위도에 닿게 된다. 우리나라 4대 어장에 드는 칠산 바다의 중심지였던 이 섬은 원래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년에 부안군으로 편입되었다. 이곳에서 잡히는 조기는 대부분이 영광으로 보내져서 맛있는 ‘영광 굴비’가 된다. 봄철에 흑산도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조기 떼들이 이 섬을 거칠 무렵에 알을 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잡히는 굴비의 맛이 좋다. 그러나 조기의 황금어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 섬도 날이 갈수록 어획고가 줄어들어 지금은 쓸쓸한 낙도로 변해가고 있다.

위도의 선착장에서 서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곳의 대리 마을에는 전통 민속인 ‘띠벳굿’이 전해 온다. 이 곳은 정월 초사흘부터 보름까지 벌어지는데 풍어를 부르고 마을의 액운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이다. 마을 뒷산에 있는 원당에서 원당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짚으로 만든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띠배에는 여러 개의 꼭두각시와 밥, 그리고 갖가지 소원을 담은 종이

가 실려 있고 작은 오색기가 꽂혀진다. 그리고 고깃배의 콩무늬에 줄을 이어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뒤에 묶었던 줄을 풀어 버리면 띠배는 천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띠배는 바닷사람들이 용왕에 바치는 공물인 셈이다.

부안은 산과 바다와 들을 한곳에 조화시켜 빼어난 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닌 고장이다. 그중 변산반도 邊山半島는 부안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명승지로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부안 산천조 扶安山川條를 보면 ‘변산은 산봉우리가 휘돌아 백여리에 뻗쳐 있으며 겹겹이 쌓여 높고 깎아지른 듯 크며, 바위와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다...’라 하였다. 가히 변산은 영산이라 불리어질만 하며, 옛부터 전국에서 기근과 병란의 염려가 없어 피난하기에 좋은 땅 십승지지 十勝之地의 하나였다.

변산해수욕장은 대천, 만리포와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의 하나로 부안읍에서 서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격포로 가는 해안도로를 따라 이곳에 가는데,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고 또한 도로변의 경치가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다. 이곳 변산 해수욕장은 모래가 가늘고 부드러우며 수온이 알맞고 수심의 차가 완만하다. 또 파도가 거의 없어서



가족휴양지로 적합하다. 또한 주변 가까운 곳에 채석강, 하섬, 직소폭포, 내변산의 봉래구곡, 부안댐 등 볼만한 경승지가 산재해 있다.

부안군의 특산물로 ‘개암 죽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 상서면 감교리에서는 서해의 해풍을 받고 자란 3년 이상의 대나무와 곰소 바닷가의 천일염으로 소금을 굽는 죽염 공장이 있다. 대나무와 천일염을 900℃에서 1500℃ 온도로 아홉번을 구워 만든 것이 죽염이다. 죽염은 건위, 피부질환 등에 특효가 있고 죽염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은 건강식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서해 청정지역에서 잡히는 곰소, 격포항의 활어도 싱싱하고 담백한 맛으로 유명하다. 백합(생합)죽은 고단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양식으로 인기가 있고 특히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9월부터 11월에 잡히는 대하(큰 새우) 요리도 부안의 명물로 소문나 있다. 이밖에 육지에서는 개화간척지에서 생산되는 ‘개화특미’가 이름나 있다. 이 쌀은 경기미를 능가할 정도로 기름지고 맛이 있어 생산되기가 바쁘게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